

제 76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8.3.19)

일본정치의 현황과 한일관계

코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 실패한 아베정권, 신자유주의개혁의 현실화, 2005 년 우정민영화선거의 후유증, 대테러특조법 재연장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와 민주당의 입장의 차이 등의 상황에서 후쿠다 정권이 발족하였다.

당내 소수파에서 발족되어 당 밖에도 신경을 쓰며 고지지율로 정권유지를 한 코이즈미내각에 반해 아베내각은 당내의 압도적다수파에서 발족되어 당내에 대부분의 신경을 쏟음으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책의 제시에 실패함으로써 인기의 저조를 겪었다.

한편, 새로운 정치문화의 조류를 보자면, 행정개혁을 증세보다 중시했던 코이즈미와 아베정권을 거쳐 후쿠다정권은 행정개혁보다 증세를 보다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신보수주의의 모습으로 변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를 최근 설문조사로 알아본 결과, 좋아진다가 36.9%, 나빠진다가 60.7%이며, 나빠진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47.9%와 13.5%가 각각 민주당과 자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향후정국의 초점은 해산총선의 타이밍이다. 3 월 조세특별조치법 기간만료 시점일 것인지, 4 월 예산위 통과후일 것인지, 9 월 토야코 정상회담 및 북경올림픽후일 것인지, 아니면 헤이세이 21 년 이후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정치의 과제로는 국민에 의한 변화기대, 지역주체의 신규산업육성, 규제완화에 따른 생산코스트 삭감, 국가의 전략적 파트너 만들기 등이 있다.

한일교류의 과제로는 2003 년에 제 1 회 정부간 교섭이 있었으며, 2005 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 바가 있는 FTA 를 들 수 있으며, 대북한정책에서 한미일 삼국협조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Q&A>

Q. 대미의존도에 대한 외무성의 태도는?

A. 외무성의 특별한 태도는 없다. 외무성은 정부관료며, 관료들은 정치가들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Q. 북핵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북핵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핵이 북한내에 있는 것에 대해선 큰 염려를 하지 않으나, 그것이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우려한다. 반면,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므로,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한일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Q. 티벳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인권문제 등으로 비판에 나설 서방국가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후진타오 주석 방일도 다가오는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편에 설 것인가?

A. 일본은 5월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티벳사태와 관련하여 서방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비난하는 등의 편에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자극적인 발언을 곧잘 하는 하시모토 오사카 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일본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선 참의원이나 중의원이 아닌, 지사 등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시모토는 지명도나 인기는 있으나,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민생활에 밀착된 일본정치는 가능한 것인가?

A. 일본 국민들은 정치 이데올로기 등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문제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실리가 있으면 좋다. FTA 등이 좋은 예이다.

Q. 어느 선 이상이 되어야 한일관계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A. 일단 한국과 일본은 견해차이가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짝사랑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제는 결착을 짓지 않고, 변명을 계속 한다는 것이다.

Q.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인식문제, 과거청산문제, 헌법개정문제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역사등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낮다. 교육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정도가 역사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헌법개정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지금 현 헌법으로도 자위대 등은 잘 활동하고 있다. 그걸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일본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의존도 등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자본주의인 일본은 중국과 성질이 다르다. 일본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의존할 것으로 생각한다.